

서민 빛 3000만원 줄이는 게 우선... 종합금융플랫폼 목표

CEO인터뷰
조영민 한국금융솔루션 대표

Finset N

“소비자가 체감하는 금융과의 간극을 줄여서 일상 속에서도 금융이 가까이 있음을 느끼게 하고 싶다. 지금은 대출비교가 중심이지만 향후에는 종합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하려 한다.”

대출비교 플랫폼 ‘핀셋N’을 운영하는 한국금융솔루션의 조영민 대표의 말이다.

한국금융솔루션은 2017년 코스콤 사내벤처로 시작해 지난해 분사했다. 같은해 5월에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면서 성장에 급물살을 탔다.

‘핀셋N’은 출시한 지 1년 조금 넘는 지금 누적 다운로드 15만회 이상, 14만명의 대출비교 조회 이용 등의 실적을 이뤄냈다. 최근 데이터 3법 통과로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화하면서 종합금융플랫폼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대출 금리 다이어트’ 위한 비교서비스

코스콤에서 20년 넘게 증권, 투자 부문에서 일한 조 대표가 사내벤처로 처음 생각한 것은 투자 혁신 서비스였다. 그간의 경험을 살려 투자를 좀 더 쉽게

누적 다운로드 15만회 이상 이뤄 개인별 빅데이터 분석해 대출 안내 연말까지 짜투리투자 등 공개 예정

만드는 서비스를 고안했다. 그런데 시장조사 과정에서 의외의 사실을 포착했다. 일반적인 서민들은 금융자산은 커녕 평균적으로 3000만원 가량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

“대부분이 빚을 지고, 갚아나가기도 벅찬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외쳐봐야 소용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그들이 가진 빚을 먼저 줄여주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서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한 거죠.”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대출비교 플랫폼 ‘핀셋N’이다. 핀셋N은 개인별 신용과 부채 등으로 빅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대출 가능 상품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22개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73개 대출 상품을 한 번에 제공한다. 각 금융사에게 개별적으로 대출 문의를 해야 했던 기존 방식 대신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제공해 소비자들의 편



조영민 한국금융솔루션 대표

/이영석 기자

◆ ‘신용정보 중심의 대출 환경...대출 소외계층 문턱 낮춘다’

“지금까지는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각 개인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그 속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한다. 연체가 자주 발생하는 소득구조를 지닌 소상공인은 담보대출, 신용대출도 어렵지만 할 뿐이다.”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대출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출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한국금융솔루션은 과학기술정보통신

신부가 주관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실증 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을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부동산산업협동조합 등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조 대표는 “부채와 연체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 신용평가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며 “임대료 납부 실적, 점포 권리금, 매출 등을 반영해 대출시장에서 소외받아온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건강데이터, 보유 주식 등

을 활용해 대안신용평가 항목 개발도 진행 중이다.

◆종합금융플랫폼으로의 확장 ‘핀셋N’ 또한 지난 8월 기존 브랜드명인 ‘핀셋’에서 ‘핀셋N’으로 교체를 결정하면서 종합금융 플랫폼으로의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대출비교뿐 아니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짜투리 투자’, 은행·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실시간 확인 등을 연말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금리비교를 통해 절약한 비용을 다시금 투자로 이끌어 순환구조로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표는 “대출비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리를 낮추면 그만큼의 여유 자금이 생기는데, 그 여윌돈을 통해 적금에 넣을 수도, 투자에 사용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생긴 여윌돈이 다음번 대출에서는 금리를 낮춰 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핀셋N은 금융사에 속해 있지 않은 독립적인 제삼자인 만큼 고객입장에서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뿐 아니라 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애쓰려 한다”며 “나아가 곧 사회에 나갈 내 딸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하는 게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코로나19 시대, 급증하는 온라인 장비기

주문상품 전용 집하장에서 직원들이 상품 배송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매장에서는 온라인 주문 상품을 2시간 안에 보내주는 ‘바로배송’ 서비스를 4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8월 매출은 5월 대비 39.7% 증가했다.

수도권에서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조치가 시행되자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노원구 롯데마트 중계점에 마련된 온라인 주문 상품 전용 집하장에서 직원들이 상품 배송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매장에서는 온라인 주문 상품을 2시간 안에 보내주는 ‘바로배송’ 서비스를 4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8월 매출은 5월 대비 39.7% 증가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빚내서 버틴다 산업별대출금 사상 최대

산업별대출금 잔액 1328조2000억 전분기말 대비 69조1000억 증가 서비스·제조업 대출 증가 사상 최고 자동차 등 일부 업종, 시설자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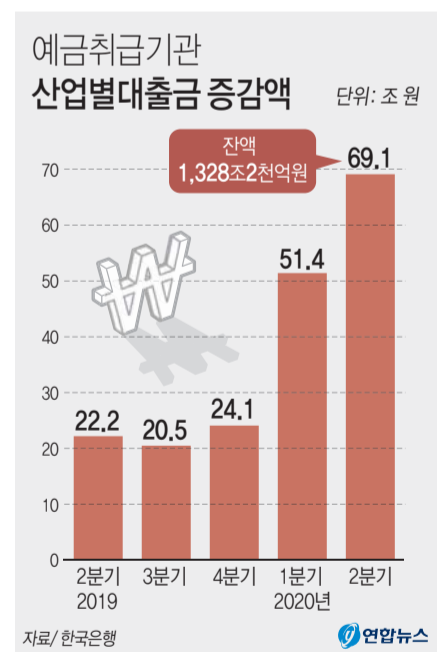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분기 산업별대출금이 사상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타격이 큰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폭이 역대 최대치를 모두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대출금 잔액은 1328조2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69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분기 51조4000억원보다 확대되면서 증가폭이 통계 편제 이후 최대치로 기록됐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전분기 대비 47조2000억원이 늘었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증가규모는 각각 17조2000억원, 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대출 증가는 사상 최대폭이다.

한은 관계자는 “서비스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자금확보 노력이 지속되면서 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됐다”며 “제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수요가 늘어난데다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에서는 시설자금도 증가했다”고 설



명했다. 서비스업 내에서는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18조8000억원) ▲부동산업(+10조6000억원) ▲운수 및 창고업(+3조2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세 업종 모두 전기 대비 대출 증가폭이 역대 최대치다.

용도별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운전자금이 52조1000억원이나 폭증했고, 시설자금도 17조원이 늘었다.

업권별 전기 대비 증가폭은 예금은행이 45조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24조1000억원으로 모두 증가폭이 확대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 확보 총력전

정부, 전담 치료병원 지정 민간시설 9곳에 군의관 긴급투입 전담간호사 교육생 250여명 양성

정부는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원’을 지정해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더 늘릴 계획이다. 지정된 병원에는 손실 보상은 물론, 충분한 보상(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와 협력해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군 인력을 지원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수도권 민간 의료시설 9곳에 군의관이 긴급 투입된다. 1차로 파견이 확정된 인원은 20여명 정도이다.

정부는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전담 간호사 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개 교육기관에서 250여명의 교육생을 선정했으며 이달부터 연말까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진료에 있어 꼭 필요한 이동형 음압기, 인공호흡기, 에크모(체외막 산소화장치) 등 의료장비도 즉시 지원해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혹시 모를 전국적 확산에 대비한 준비도 나선다. 연말까지 권역별로 ‘감염병 거점 전담병원’을 지정해 해당 권역 안에서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 환자 분류 및 병상 배정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23개 의료기관에 총 1천54억원을 지원해 이달까지 병상 110개, 연말까지는 103개를 추가로 확보해 내년 상반기까지 중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총 496개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최근 수도권 교회와 집회에서 발생한 환자 가운데 60대 이상 환자의 비율이 40%를 넘는 등 중환자 병상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054억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까지 496개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